



민주평통 임실군 협의회,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염상열)는 지난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6 임실 평화공감 열린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민교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실천적 통일 준비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김희영 국민소통상임위원과 자문위원 퍼실리테이터들이 각 테이블의 소통을 이끌며,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평화 모델,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임실군 사회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비전이 우리 지역의 경제적 상생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 산림치유 골목, 세계의 시선이 머물다

인도 선교사 2명, 다양한 치유 콘텐츠 체험·주민 참여 운영 방식 '큰 관심'

진안군은 지난 27일 인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2명이 진안 치유골목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약계층 자립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에 관심을 가져온 선교사들이 진안군의 관련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둘러본 뒤, 해당 센터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는 치유골목까지 방문하며 현장 이해를 높였다. 치유골목에서 선교사들은 산림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연을 기반으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했다. 진안 치유골목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치유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중심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치유골목의 가치와 잠재력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향후 국내외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치유골목 콘텐츠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신규 입점 예정인 '밥상지킴이유다'는 갤러리 카페를



통해 휴식과 문화를 결합한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며, '마이슈나부영원'은 식물 클리닉 운영을 통해 자연 기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추가 입점이 예정돼 있어 치유골목의 매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안전면, 제52회 면민의 날 성황리 마무리

제52회 안전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이 지난 25일 안전면 소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면민, 향우, 자매결연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 행사로는 안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순가락 난타, 춤바름바(정소년), 사이닝 댄스가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해금 연주가 잔잔한 울림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박기상(공익장), 이길선(애향장) 씨가 면민의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이후 체육행사 시간에는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경기가 진행됐으며, 초청가수 공연과 면민 노래자랑이 이어지며 면민과 향우가 함께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남원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물 점검

남원시는 제96회 남원 춘향제를 앞두고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3일과 28일, 남원경찰서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원시 시민참여단 30명과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진행, 춘향제의 주 무대인 관한루원과 요천 둔치를 비롯해 축제 주요 행사장 및 인근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펼쳤다. 점검에서는 전과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까지 살폈으며, 완료 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였다. 남원시는 축제 기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 도시 남원'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중산신협, 신협중앙연수원서 '조합원 교육' 실시

협동조합 가치 공유·현장 체험 병행 등

전주중산신협이 조합원 대상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가치 확산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전주중산신협은 지난 24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조합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와 신협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이후에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이번 일정은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라양노 이사장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편 전주중산신협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4,400억 원의 자산과 1만 6,8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자본비를 7.24%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종합경영평가에서 총 16차례 경영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춘향제 대비 합동 현장점검 실시

남원소방서는 28일, 제96회 춘향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상자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 구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남원소방서(최승범 구급팀장)는 보건소·남원의료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해 임시 비상연락망과 단체 소방방을 사전 구축해 다수사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작년 고령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올해 선제적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으로 관내 노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해 아간에 밝은 옷을 입고 보행하기, 이륜차 안전도 착용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사고 다발 구간 집중 순찰을 하여 전동휠자차를 타고 운행하는 고령자 발견 시 의자차 커버를 배부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증양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안군 백운면 지사협,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배달

진안군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는 28일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3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식품 배달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은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펴며 이웃 돌봄을 실천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건강 간식 꾸러미 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고립 위험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Advertisement for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The breath of the Baekje craftsman remains intact) featuring the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Ik-san Wanggong-ri Ocheungseoktap). The ad includes a large image of the pagoda and descriptive text about its history and significance.